

등권 268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1 2022

등푸른 물결



독도가
동해보다 작으심 이라고?
너 마흔대는
이렇게 큰데?

'독도-권김'
차경수 2013 贈

2022년을 축하합니다.
- 우리 이렇게 사느라 있습니다.
오늘은, 늘 축복입니다.



제24차 당진환경운동연합 정기 총회

일시: 2022년 2월 14일(월)

장소: 메가페밀리 뷔페(당진시 당진중앙1로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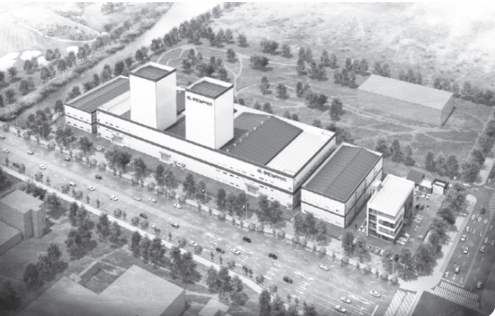


"세월호 철저한 진상규명"



자연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 석문산단 불산공장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좌초 위기에 놓인 버스 공영제



당진시민 81.7%, 203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 동의

- ▶ 발행일 2022. 1.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이동준, 유형민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angjin.kfem.or.kr

3 이달의 시

| 부치지 않은 편지 1 / 정호승

4 지역환경초점1

| 당진 석문산단 불산공장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5 지역환경초점2

| 유종준 센터장,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6 지역환경초점3

| 좌초 위기에 놓인 버스 공영제

8 지역환경단신1

| "북운리 갯벌 매립 계획 철회하라"

9 지역환경단신2

| 당진시민 81.7%, 203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 동의

10 지역환경단신3

| 충남시민단체, 충남탄소중립위 재구성 촉구 시위

11 지역환경단신4

| 보호구역 지정해도 송전탑 못 막는다?

12 지역환경단신5

| 화력발전세 '100% 인상' 본회의 통과

13 전국환경초점1

| 시민단체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14 전국환경초점2

| "기후위기 앞당기는 석탄발전 그만"

16 석탄씨를 구해줘

| 제16화 일종의 연예인 병

18 에너지 이야기

| "태양광 폐패널의 90%를 재활용 합니다"

19 12월 살림살이

20 12월 활동소식

22 1월 주요사업 계획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24 광고

부치지 않은 편지

정 호 승

그대 죽어 별이 되지 않아도 좋다
 푸른 강이 없어도 물은 흐르고
 밤하늘이 없어도 별은 뜨나니
 그대 죽어 별빛으로 빛나지 않아도 좋다.
 언 땅에 그대 묻고 돌아오던 날
 산도 강도 뒤따라와 피울음 울었으나
 그대 별의 낮이 되지 않아도 좋다.
 앞새에 이는 바람이 길을 멈추고
 새벽 이슬에 새벽 하늘이 다 젖었다.
 우리들 인생도 찬 비에 젖고
 떠오르던 붉은 해도 다시 지나니
 밤마다 인생을 미워하고 잠이 들었던
 그대 굳이 인생을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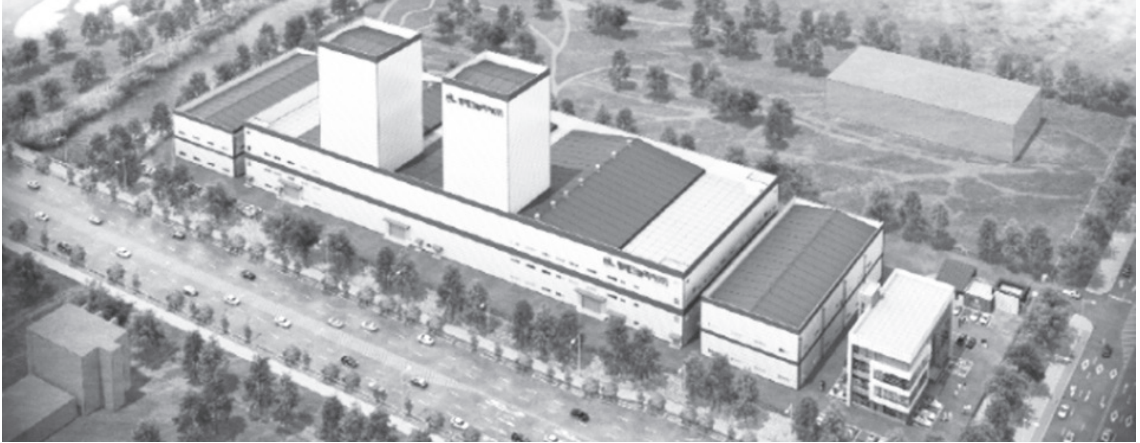
작가소개 - 정호승

1950년 하동 출생, 대구에서 성장. 경희대 국문과 및 동 대학원 졸업.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 1973년 대한일
 보 신춘문에 시 「첨성대」,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소설 「위령제」 등단.
 시집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 『새벽편지』 『별들은 따뜻하다』 『사
 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포옹』
 시선집 『흔들리지 않는 갈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산문집 『내 인생에 힘
 이 되어준 한마디』 어른을 위한 동화집 『항아리』, 소월시문학상, 동서문학
 상, 정지용문학상, 편운문학상, 가톨릭문학상, 상화시인상 등 수상.



당진 석문산단 불산공장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당진시 “안전 대책 미비”..램테크놀러지 “행정소송 준비”



램테크놀러지 조감도

(주)램테크놀러지에서 충남도에 제기한 석문산단 불산공장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13일 충남도 행정심판 위원회는 심의를 열고 불산공장 불허가를 한 당진시 손을 들어줬다. 앞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열린 1차 심의에서 당진시와 램테크놀러지에서 주장한 안전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는 점에서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라며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당진시와 램테크놀러지는 안전성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를 각각 제출했고, 최종 심의에서는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당진시 허가과 관계자는 “청구인 측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전문가 의견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이 미비하고, 과거 불산 누출 사고 등에 대해 자료를 시에서 제출했다”면서 “무엇보다 과거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결서는 2주 후에 나올 예정이며, 정확한 내용은 그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에 맞

춰서 시에서도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석문면 주민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석문면 개발위원회 강정의 위원장은 “기각은 잘 된 일”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은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할 예정이며, 불산공장이 석문에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주)램테크놀러지는 재결서의 내용을 검토 후에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국내 안전 기술사 및 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받아서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행정심판에서 안전에 대해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기각됐다”면서 “회사는 석문산단에 이미 부지를 마련했고, 기술력도 준비된 만큼 재결서를 받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염두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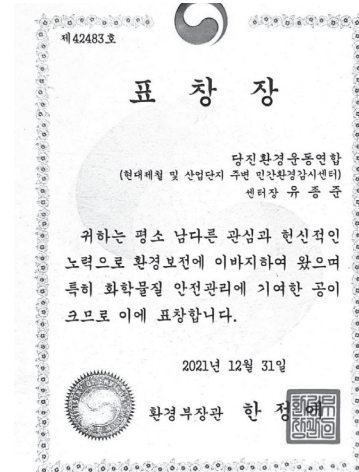
한편 충남 금산군에 소재한 (주)램테크놀러지는 초고순도 불산 등 반도체 제조 공작용 화학소재를 생산하며, 금산공장에서 3년 동안 4번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당진신문]

유종준 센터장,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여



유종준센터장



환경부장관 표창장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제철산단 감시센터) 유종준 센터장이 12월 31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유종준 센터장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이후 제철산단 감시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글 : 사무국]

당진환경운동연합, 민간환경감시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송영주·황성렬)이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는 당진시공론화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달 말까지 운영되는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역할과 조직을 확대해 당진지역의 산업폐기물처리장 감시 활동까지 담당할 계획이다.

당진시는 지난 11월 감시센터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을 모집한 가운데, 당진환경운동연합과 환경참여연대 당진시지부가 공모에 참여했다. 그 결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2024년 12월까지 3년 동안 센터를 운영한다. 2022년도 사업비는 5억 원이다

[출처 : 당진시대]

좌초 위기에 놓인 버스 공영제

당진시의회 공영제 관련 예산 234억 원 삭감
시의회 “공론화·예산수립 근거 부족”
시민단체 “버스 공영제 적극 추진해야”



12월 22일 당진시 버스공영제 추진 시민운동본부(주)가 당진시청 앞에서 당진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시가 추진해온 버스 공영제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234억 원 가량의 버스 공영제 관련 예산 대부분을 삭감한 것이다.

당진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당진시내버스 공영제를 추진해왔다. 현재 민간회사인 당진여객운수(주)가 당진 지역 시내버스 운영을 맡고 있지만, 당진시는 공영제를 통해 당진시가 시내버스를 직접 관리·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 완전공영제 추진

자가용 자동차가 증가하고 시골지역의 인구가 줄면서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하자 버스회사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버스회사에서는 인구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 벽지 노선을 줄이거나 폐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돼왔다.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진시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하고자 해마다 수십 억 원(지난해 39억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버스 노선과 서비스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버스 공영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및 탄소중립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홍장 당진시장은 편리한 대중교통 여건을 만들어 시민들의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자 임기 내 버스 공영제 도입을 강조해 왔다.

김 시장은 “자가용이 없으면 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시민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버스 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한국지식산업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으로 민간운수업체가 운영하는 준공영제보다 당진시가 직접 관리하는 완전공영제를 선택하게 됐다”며 “버스 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에너지 절약, 교통량 감소, 주차 문제 해결, 운수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고용 창출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 친환경버스 및 고급화차량 공급, 타 교통수단과 연계 환승 체계 구축 등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운수회사의 적자를 보조금으로 메꾸는 댐질식 처방보다 버스 공영제를 통해 경영 개선과 효율화, 투명한 운영으로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론화 부족 및 감정평가도 아직”

하지만 지난 당진시의회에서는 버스 공영제 관련 예산 삭감을 최종 의결했다. 공영제 관련 예산 중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위한 자문료 800만 원만 승인됐다.

윤명수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공영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진시가 공영제가 가능한 재정 여건이 되는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과다 추계해 올렸으며,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련 예산을 부결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지매입 예산을 세우게 되면 당진시의회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어 버스 공영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당진항만관광공사에게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 바 있다. 양기림 당진시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교통 전문가 없는 당진항만관광공사에 위탁을 맡기는 것에 걱정이 된다”면서 “공사에 위탁을 줬을 때 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 책임을 지고 할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버스 공영제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돼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시민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의회를 규탄했다. 또한 진보당에서도 논평을 내고 시민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버스 공영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당진시대]

당진시민 81.7%, 203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 동의

석탄발전 지역 주민 인식조사 결과



지난 12월 7일 석탄을넘어서와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석탄발전 지역 대상 석탄발전 및 기후위기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 인식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당진시민 81.7%가 2030년까지 탈석탄에 동의하고 85.0%가 이번 대선에서 지지후보 결정시 기후위기 대응공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당진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고 있는 전국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1월 5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 12개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 3,600명을 대상으로 '석탄발전소 지역 주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12개 지역별로 각 300명을 조사한 이 설문조사는 응답률 11.8%,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pm 1.63\%$ 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ARS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중 당진 응답자 내용을 보면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 인식조사 결과 203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에 당진 주민 81.7%가 동의하고 있으며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동의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 66.7%, 건강문제 2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지지후보 결정시, 후보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85.0%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9.0%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높은 기후위기 관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도 4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57.3%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타 지역에서 소비되는 사실을 32.7%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석탄발전 조기폐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시민 중 62.1%가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부족'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답한 사실을 거론하며 "기후위기 대응,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신속한 확대가 절실하다"고 에너지전환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출처: 당진신문 일부 발췌]

보호구역 지정해도 송전탑 못 막는다?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위한 관리위원회 사전설명회 개최



당진시가 소들섬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도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이미 허가받은 송전선로를 당진시가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

(중략) 당진시 환경정책과는 지난달 30일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중략)보다 빠른 추진을 위해 사전에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관리위원들에게 설명하고자 이번 회의를 진행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은 우리나라를 거처가는 철새가 이동하는 경로 중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 (중략)다양한 철새가 찾아오는 지역이다. 특히 소들섬은 (중략)30여 종의 최대 8만 마리의 월동 조류가 도래하는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금개구리,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붉은부리갈매기, 수달, 삿 등 보호종도 발견되고 있다.

현재 삽교호 내수면에 위치한 소들섬을 포함해 우강면 부장리와 신촌리 일대 274만7930.6㎡(약 83만 평)을 대상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절차가 추진 중이다. (중략)현재 보완사항을 완료해 환경부 최종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당진시가 지역주민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국전력공사 측이 유일하게 부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중략)“당진시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법률이 조례보다 우선하고, 배상책임도 발생하므로 보호구역 지정 단계에서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된 부지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진시가 3곳의 법무법인(상록수, 남현우법률사무소, 둔산)에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은 협의 과정만 거치면 되므로 한전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정은 가능하지만,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조례에 근거해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전은 전원개발 촉진법에 근거한 합법적 행위임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당진시가 한전의 공사를 중지할 법률상 근거는 없다” 등의 답변을 받았다. (중략)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일대 친환경 농업 추진, 지정 범위 확대 등 기타 의견이 제시됐으며, 소들섬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위원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합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출처 : 당진시대 일부 발췌]

화력발전세 '100% 인상' 본회의 통과

현행 kWh 당 0.3→0.6원..당진시 세수 연 90억→180억



당진화력발전소 전경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이 2024년부터 100% 오른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화력발전세 인상 노력이 마침내 빛을 본 것. 화력발전세는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 개선 사업·조사·연구 △충남 지역 에너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 △도 및 시군 추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복지 사업 등에 활용 중이다. 현행법 상 수력은 kWh 당 2원, 원자력은 1원인데 반해 화력발전은 0.3원에 불과해 발전원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돼있는 충남의 경우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로 피해가 심각함에도 세수 면에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넘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

전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상 세율을 적용하면 도내 화력발전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당진시는 연 90억원 가량에서 180억원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율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태양광, 풍력, 신재생융합·복합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소산업 육성 등 에너지 전환 △이차전지·연료전지 R&D 지원, 분산형 전원 보급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 추진 △미세먼지 대응, 발전소 주변 환경 조사·개선 등 기후·환경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발전원간 과세형평성 제고와 석탄화력발전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저감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당진신문]

시민단체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12월 20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 (사진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정부가 최근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여론 수렴 과정에 들어갔지만, 부산 등 전국 탈핵·환경·시민단체가 정부의 기본 계획 재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수립'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어 산업부는 지난 1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의견 수렴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었지만, 원전 지역 이해 관계자와 시민단체 등은 이

날 회의에 제외됐다. 시민단체는 이번 2차 계획안을 '실패한 공론화에 근거해 실질적인 길을 제시하지 못한 방안'으로 규정했다. 전국회의는 "산업부가 논란의 핵심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제대로 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도 없이 당연히 건설해야 할 시설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원전) 부지를 고준위 핵폐기장화하는 것으로, 사회적 갈등과 지역 내 분쟁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과정이 공정성, 숙의성,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채 엉터리로 진행돼 원점 재검토 말고는 답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출처 : 노컷뉴스]

“기후위기 앞당기는 석탄발전 그만”

환경단체, 포스코·삼성 규탄 시민행진 진행



12월11일 '포스코·삼성 규탄 시민 행진 석탄발전 그만 지어!' 대규모 집회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시작해 행진을 통해 선릉역 포스코센터 앞까지 진행됐다.

12월11일 '포스코·삼성 규탄 시민 행진 석탄발전 그만 지어!' 대규모 집회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시작해 행진을 통해 선릉역 포스코센터 앞까지 진행됐다.

이 시민 행동은 150명의 시민과 함께 진행됐으며, 포스코와 삼성이 건설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삼척블루괴와 1·2호기와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신규 석탄발전소들이 건설돼 가동을 시작하면 향후 30년간 매년 약 2800만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 현장인 삼척과 강릉에서는 발전소 건설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의 주민 피해와 해변 침식으로 인한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포스코와 삼성에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환경 파괴의 책임을 명백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가수 '생명을 노래하는 우창수와 김은희'의 무대 공연을 시작으로 연대 발언, 선언문 낭독, 공동 퍼포먼스 "석탄 뿌셔"로 이어졌다.

연이어 예술단체 '라퍼커션'과 함께 시민들이 강남역 삼성전자 서초사옥부터 선릉역 포스코센터 앞까지 한 시간 가량 행진했다.

집회는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경고하는 참가자들의 '다이 인'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온실가스 연간 2800만톤 배출 전망

이지우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운영위원은 “

강릉과 삼척에 무려 4000MW가 넘는 용량의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들 석탄발전소에서 건설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2800만톤이다. 이는 청년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림 가톨릭 기후행동 수녀는 “가톨릭기후행동은 2019년 출범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연대해왔고, 지금도 ‘아픈 삼척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말 삼척에 다녀왔으며 삼척블루파워가 건설되며 망가진 현장의 모습을 전했다.

이날 시민행동에는 강릉, 삼척, 당진, 서천, 인천, 고성 등 전국의 석탄발전소 지역의 주민들이 참가해, 시민 행동에 의미를 더했다.

2021년 6월과 10월에 차례로 충청남도 서천과 경상남도 고성에서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강원도의 석탄발전소 현황을 언급하며, “삼성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면서 1조원 이상의 이익을 거두는 동안, 인근 주민들은 매일 쏟아지는 분진과 소음, 그리고 공사차량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민이 겪는 불편을 호소했다.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일류 기업이라고 칭하는 삼성과 기업시민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포스코는 강릉과 삼척의 해변을 무참히 짓밟고 있으며 우리가 얻게 된 편하게 쓸 수 있는 전기는 수많은 발전소 노동자들의 노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눈물과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경준 강원도 송전탑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수도권으로 옮겨지기 위해 높이 100m가 넘는 송전탑 440기가

강원도와 경기도의 산야를 관통해 건설될 것”이라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익도 없고, 책임과 권한도 없다. 오직 수도권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전국에서 석탄발전소가 가장 많이 가동되고 있으며, 2018년 당진에코파워 건설 계획을 무산시킨 충남에서 발언이 이어졌다.

황성렬 기후위기충남행동 공동대표는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지역이 당진, 서산, 보령, 서천이다. 기후위기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서울은 아무런 고민도 뉘우침도 없이 전기를 쓰고 있다. 전기요금이 현실화 되어야 전기의 소중함을 느낄 것”며 석탄발전 지역 주민의 고통을 전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아이들의 미래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전기요금 인상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이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공동 선언문은 최화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이완기 인천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팀장이 낭독했다. 선언문에는 98개 단체와 53명 개인이 연명했다.

[출처 : 환경일보 일부 발췌]

석탄씨를 구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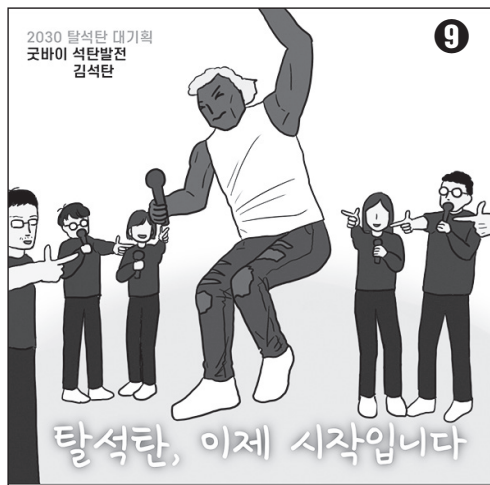
제 16화 일종의 연예인 병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석탄씨를
구해줘

제 16화 일종의 연예인 병



김석탄이 알려주마

얼마 전 환경연합이 진행한 국회 설문에 따르면 무려 72명의 국회의원이 석탄발전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어. 질의에 답변한 의원은 100% 석탄 퇴출 로드맵 마련에 동의한 거지.

언제까지 석탄발전이 모두 없어져야겠냐는 질문에는 2030년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응답한 의원의 83%는 신규 석탄발전의 건설중단 또는 전환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지.

이제 대답들은 다 했으니까 실행에 옮길 차례겠지?

김석탄이 알려주마

얼마 전 환경연합이 진행한 국회 설문에 따르면 무려 72명의 국회의원이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어. 질의에 답변한 의원은 100% 석탄 퇴출 로드맵 마련에 동의한 거지.

언제까지 석탄발전이 모두 없어져야겠냐는 질문에는 2030년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응답한 의원의 83%는 신규 석탄발전의 건설중단 또는 전환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지.

이제 대답들은 다 했으니까 실행에 옮길 차례겠지?

프로필 링크 서명해 주세요

더 자세한 조사 결과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로!

환경운동연합

"태양광 폐패널의 90%를 재활용 합니다"

진천 태양광재활용 센터.. 연 3,600톤 폐패널 처리
태양광 모듈에서 유리, 알루미늄 등 분리



충북 진천에 자리한 태양광 재활용센터 사업장 내 모습.

28일 방문한 충북 진천에 자리한 농구장 크기 정도의 태양광 재활용 센터. 공장 내부는 화학물질 냄새와 기계 소음 등으로 가득했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절차는 패널 조립의 '역순서'이다. 우선 패널의 뼈대를 이루는 프레임을 해체한 후, 태양광 설비의 뒷부분을 보호해주는 물질인 백시트를 분리하고 또 강화유리·셀 등을 떼낸 뒤 모듈을 분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모듈에서는 유리, 알루미늄 등을 분리하며 구성 성분의 90% 이상을 재활용 한다. 현재 민간에서 파쇄법을 활용한 두곳의 폐패널 업체가 영업중이지만, 이곳 재활용센터에서는 강화유리셀분리장치와 열분해 기술 등 민간 사업자와 다른 기술을 적용했다. 민간 사업자는 폐패널 1톤당 12만원의 처리 비용을 받고 있으며, 재활용 센터 또한 '민간시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가격에 준하는 정도의 비용을 책정해 태양광 재활용 생태계를 강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2023년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되면 민간기업의 시장 진입이 증가해 폐모듈 재활용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테크노파크 태양광 모듈연구센터 관계자는 "내년께 사용개시신고 이후 본격 가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재활용센터 구축에 지방비 95억 원을 합쳐 총 188억4,800만원을 투입했다. 충청 북도와 진천군이 사업 주체로 나섰으며 충북테크노파크 외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이 관련 기관으로 참여했다.

[출처: 서울경제]

2021년 12월 결산보고서 (사업기간 : 2021년 12월 1일 ~ 12월 31일)

수입액

[항명]	[목명]	수입집계	비고
이월금	11월 이월금	8,616,802	전월이월금
회원회비	개인회비	6,010,000	CMS, 자동이체, 지로, 특별회비
	[항집계]	6,010,000	
후원금	일반후원	372,380	개인 후원금
	재정사업	0	후원금
	[항집계]	372,380	
사업수입	회원사업	0	회원사업
	공모사업	0	공모사업
	기타사업	0	기타사업 수입
	[항집계]	0	
기타수입	기타수입	4,150	예금이자
	[항집계]	4,150	
월수입 총액	계	6,386,530	
수입 총액	계	15,003,332	전월이월금 포함

지출액

[항명]	[목명]	지출집계	비고
경상비	제세공과금	477,030	자동차보험료, 취득세, 전화료, 전기료, 신문대금, 수수료 등
	유지관리비	303,900	관리비, 집기구입, 차량수리비, 실내등유, 커피구입 등
	자산취득비	250,000	비품, 자산구입
	복지후생비	240,000	업무추진비, 식대 등
	[항집계]	1,270,930	
인건비	급여	4,330,000	상근자 2인
	상여	0	
	퇴직적립금	360,840	
	사회보험료	450,470	
	[항집계]	5,141,310	
사업비	일반,공모사업	318,100	공모사업, 석탄화력, 송전탑, 등 현안사업 준비
	조직,회원사업	1,544,010	총회, 소식지 인쇄 및 발송, 운영위 및 편집위원회, 함길구독 외
	정책,조사사업	38,600	교육 및 정책사업비
	연대사업비	460,900	중앙 분담금, 연대사업, 충남환경연합 분담금 등
	기획재정사업	0	후원의밤
	[항집계]	2,361,610	
기금조성비	장기발전기금	0	장기발전기금
	[항집계]	0	
지출총액	계	8,773,850	

2021년 12월 잔액 6,229,482



석탄발전 지역 대상 석탄발전 및 기후위기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지난 12월 7일 석탄을넘어서와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석탄발전 지역 대상 석탄발전 및 기후위기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

지난 12월 10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포스코, 삼성 규탄 시민행진

12월11일 '포스코·삼성 규탄 시민 행진 석탄발전 그만 지어!' 대규모 집회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시작해 행진을 통해 선릉역 포스코센터 앞까지 진행됐습니다.

충남 탄소중립위 재구성 촉구 시민행동

기후위기 충남행동이 12월 20일 출범식이 열린 덕산 스피러스 리스 앞에서 충남 탄소중립위 재구성 촉구 시민행동을 펼쳤습니다.



금강유역환경포럼 개최

지난 12월 22일 금강유역환경회의, 금강유역환경청 주최로 금강유역물관리 종합계획추진체계로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위상과 금강유역참여센터 구축 방안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당진시 버스공영제 당진시의회 규탄 기자회견

12월 22일 당진시 버스공영제 추진 시민운동본부(주)가 당진시청 앞에서 당진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01 일반사업

- ❖ 1/04(화) 18:30 1월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1/05(수) 10:00 기후변화 당사자 인터뷰 준비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14:00 당진신문 후원금 전달식 - 당진신문
- ❖ 1/06(목) 10:00 당진시 기후변화 적응계획 자문회의 - 당진시청
12:00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사업기획 회의 - 아산
14:00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중간보고회 - 온라인
- ❖ 1/07(금) 14:00 충남 기후에너지단체 대선/지방선거 대응 준비회의 - 온라인
- ❖ 1/10(월) 10:00 충남환경연합 기후에너지특위 회의 - 온라인
16:00 석문중학교 석면 사전청소 모니터링 - 석문중
- ❖ 1/11(화) 10:00 버스공영제 시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 당진시청
14:00 충남 정의로운 전환 포럼 - 충남도의회
19:00 전국 송전탑반대네트워크 대선 대응 회의 - 온라인
- ❖ 1/12(수) 14:00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이사회 - 온라인
16:00 기후변화 당사자 인터뷰 준비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 ❖ 1/18(화) 15:30 당진시 기후변화 적응 시행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 당진시청
18:30 2021년 사업 및 회계 감사 - 사무실
- ❖ 1/19(수) 16:00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 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 ❖ 1/20(목) 10:00 기후위기 충남행동 전체회의 - 온라인
14:00 환경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 회의 - 미정
- ❖ 1/26(수) 17:00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18:30 총회준비위 2차 회의 - 사무실
- ❖ 1/27(목) 11:00 금강유역환경회의 운영위 회의 - 세종환경연합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주부환경지킴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1/25(화) 11시30분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당정 간 345kV 송전선로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도연 강병수 강삼옥 강은구 강은식 고낙현 고락일 고영훈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곽영복 구경숙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종원 김호종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광호
 김권기 김기권 김기동 김길자 김길찬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균 김동길 김동수 김동진 김동철 김동환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선 김범석 김병구 김병민 김보담 김봉겸 김봉균 김봉운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성훈 김세진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승택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영준 김예나 김용준 김용훈 김원용 김윤각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응열 김일권 김재성 김재영
 김재진 김재근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 진 김진남 김진용 김진호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경 김현기 김현림 김형기 김형모 김형태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장 김홍희 김홍환 나상흠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경자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연 박경일 박규섭 박근성 박기남 박기술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래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연 박종화 박창순 박태식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 훈 박희경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차옥 배국희 배병호 백광현 백운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선 오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승선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연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은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형식 신경산 신동균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신현환 심주현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자호 안효권 안효신 양영진 양정만 엄기태 오동원 오윤정 오의환 오일영 오추석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원유영 원종경 유미화 유 성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형순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중 이능용
 이대우 이덕표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봉기 이상록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새봄 이석규 이선이 이성남 이수현 이순영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인숙 이일구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화 이재훈 이정선 이정옥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증호 이증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혜선 이혜운 이혜은 이현남 이현숙 이호경 이홍숙 인남교 인만교 인현옥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옥출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제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종한 정중섭 정지섭 정찬관 정치용 조강호 조대연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신형 조용재 조재형 조한영 조현수 주영권 주은자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차재석 차준국 채종국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기승 최대실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욱 최세호 최연목
 최연이 최오상 최완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우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미경 한상무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영우 한원희 한정수 함효진 허인옥
 현 민 호상기 호흥기 홍기석 홍덕선 홍두표 홍명옥 홍성호 홍심선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상록인쇄사 영축농장 율곡어린이집 세실리아요양센터
 정우건설(주) 해송 환경운동연합에코생협

제 24차 당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안내

당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의 따뜻한 발길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여는마당

난리부르스공연 / 2021년 활동영상 상영 / 감시센터 활동보고 / 감사패, 우수회원상 수여

2부 당진환경운동연합 총회

전차회의록 보고 및 채택 / 2021년 감사보고서 채택 / 2021년 사업평가(안) 승인 / 2021년 결산(안) 승인 / 사단법인 이전 및 해산 결의

3부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 총회

2021년 감사보고서 채택 / 2021년 결산(안) 승인 / 2022년 사업계획(안) 승인 / 2022년 예산(안) 승인 / 대의원 선출 / 기타 안건

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발급 방법(종이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2022년 1월 중순부터 확인 가능)
2. 메일, 팩스나 우편으로 받고 싶으신 회원님은 041-355-7661로 전화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농협 461-01-144805 당진환경운동연합

후원하신 후원금은 기부금 영수증(연말정산)이 발급이 가능합니다.